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국내 금리에 미치는 영향
 - 국내 시장금리 상승 제한적

목 차

-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국내 금리에 미치는 영향
 - 국내 시장금리 상승 제한적

Executive Summary	i
1. 미국의 기준금리 0.25%p 인상	1
2.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국내 금리에 미치는 영향	2
3. 시사점	10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관 : 이 준 협 동향분석실장 (2072-6219, sododuk1@hri.co.kr)

동 향 분 석 실 : 조 규 림 선임연구원 (2072-6240, jogyurim@hri.co.kr)

Executive Summary

< 요약 >

■ 미국의 기준금리 0.25%p 인상

FOMC는 지난 12월 15일 기준금리를 0~0.25%에서 0.25~0.50%로 0.25%p 인상을 했다. 이미 예상된 금리 인상이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제로 금리를 유지하던 기조에서 벗어났다는 측면에서 국내 금융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국 금리 인상이 국내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국내 금리에 미치는 영향

(국내 기준금리) 국내 경제는 아직까지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국내 기준금리가 바로 인상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기준금리는 기본적으로 국내 경기를 중심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 국내 경제의 미약한 회복세를 감안한다면 상당 기간 현재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로 국내 외국인 투자자금이 급격히 유출될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 급등 등으로 국내 기준금리 역시 인상 압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양호한 국내 외환건전성,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등을 고려시 이러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국내 단기 금리) 국내 단기 금리의 상승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단기금리가 국내 단기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 미국 단기금리가 1%p 상승할 경우 국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3개월 후 0.38%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의 단기금리는 이미 기준금리 인상이 선반영되며 상승했으며, 국내 CD 금리 등 주요 단기 금리들 역시 이미 11월부터 상승한 모습이다. 향후 미국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매우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단기 금리의 경우 국내 기준금리와 연계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한다면 단기 시장 금리의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장기 금리) 미국 장기 금리와 연계성이 높은 국내 장기 금리는 향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장기채권의 금리 역시 미국 금리 인상 기대가 선반영되며 상승한 미국 장기 채권 금리의 영향으로 이미 지난 10월부터 상승했다. 2004년 한-미간 기준금리가 역전되었을 당시에도 한국의 장기채권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점, 최근 한-미간 장기채권 금리 격차가 크게 축소된 점 등을 고려한다면 향후 국내 장기금리는 지속적인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내 장기금리의 경우 미국의 단기금리보다 장기금리가 상승했을 때 이에 대해 더욱 크고 빠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점 등을 고려시 향후 국내 장기금리는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회사채 금리) 국내 회사채 금리는 비우량 채권을 중심으로 상승하면서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 회사채 금리 역시 10월부터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며, 특히 우량 채권인 AA 등급보다 비우량 채권인 BBB 등급이 빠르게 상승했다. 최근 미국 기준금리 인상 기대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내 기업들의 경우 중국의 경기 부진 등으로 인해 성장성이 저하되고 수익성이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한다면 향후에도 이러한 국내 신용 스프레드 확대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국내 가계대출 금리) 국내 가계대출 금리 역시 비은행권 대출 및 저신용 대출을 중심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가계대출 금리는 기본적으로 국내 단기 금리인 CD 금리 또는 코픽스 금리에 가산금리가 적용되어 산출된다. CD 금리가 최근 상승한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가계대출 금리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저소득, 저신용자들의 대출 금리의 상승이 예상된다. 저소득, 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가 최근 상승한 점 역시 이를 반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 정리)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기준금리가 같이 인상될 가능성은 낮지만 시장 금리의 경우 장기금리를 중심으로 완만한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회사채 부문에서는 비우량 채권의 금리, 가계대출 부문에서는 비은행권 및 저신용 대출자의 대출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시사점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로 발생할 수 있는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감 확대를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첫째**, 첫째,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로 인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국내 가계부채가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계부채 속도 조절 및 질적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셋째**, 외환시장 변동에 대한 미세조정 및 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원화 가치 급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외 경제 및 금융 충격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 공조 체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내 성장 잠재력 확충 및 가계 소득 증대 등 국내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

1. 미국의 기준금리 0.25%p 인상

○ 미국 경제의 회복세 지속으로 12월 15일 FOMC가 기준금리 0.25%p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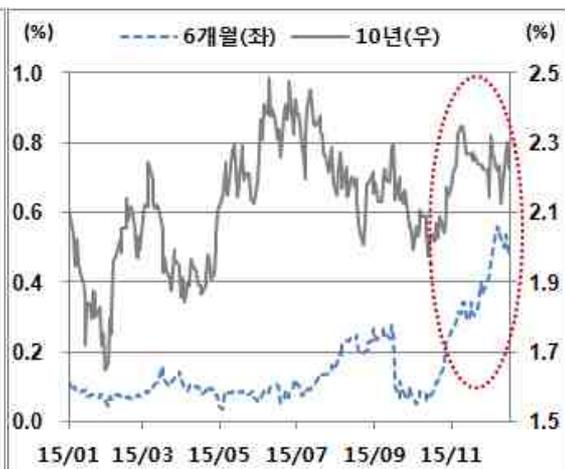
- 미국 경제의 회복세 지속으로 FOMC는 기준금리를 0.25%p 인상
 -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완화 정책을 지속하던 연준은 2014년 말 출구전략에 따라 양적완화를 종료
 - 한편 0~0.25%를 유지하던 기준금리 역시 지난 12월 15일 FOMC에서 0.25%p 인상하는 등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방향을 전환
- 미국의 장단기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강해지기 시작한 10월 중순부터 이미 상승한 상황
 - 미국 국채 6개월물의 경우 10월 초 0.08%에서 지난 12월 15일에는 0.54%로 상승했으며, 국채 10년물 금리는 2.04%에서 2.27%로 상승
-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금융시장에 불안정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어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국내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미국 내 장단기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국내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국내 시장 금리의 상승 가능성이 존재

< 미국 본원통화 및 기준금리 추이 >



자료 : FRB.

< 미국 장단기 국채 금리 추이 >



자료 : 국제금융센터.

주 : 미 정부 발행 3개월 만기 채권 및 10년 만기 채권 금리.

2.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국내 금리에 미치는 영향

① 국내 기준금리

○ 국내 경제의 미약한 회복세로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되더라도 국내 기준금리가 곧바로 인상될 가능성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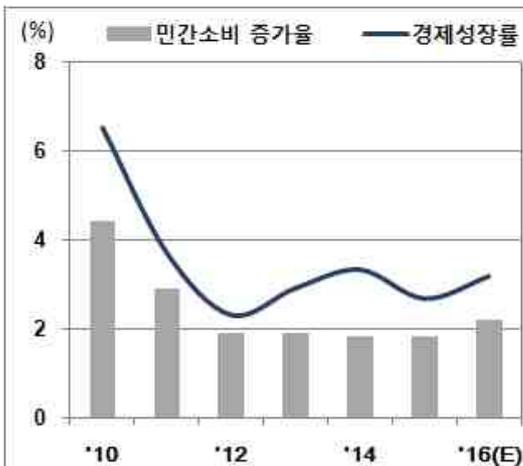
- 국내 기준금리는 국내 경기를 중심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상당기간 현재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

- 통화정책의 결정은 해외 상황을 일정 부분 고려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국내 경기 전망을 바탕으로 결정
- 국내 경기는 2015년 하반기 들어 소폭 개선되긴 하였지만 여전히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이며, 특히 2016년 상반기에는 추경 절벽 우려도 존재하는 상황

- 물가상승률 역시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의 여파로 인해 낮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 국내 물가상승률은 2014년 하반기 급격히 하락한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영향으로 1% 수준을 기록하는 등 낮은 수준이 지속
- 현재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가 2016~2018년 2.0%인 점을 감안한다면 물가 상승에 대비한 금리 인상은 고려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

<국내 경제성장률 및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 <국내 물가상승률 및 국제 유가 추이 >



자료 : 한국은행(2015.10).



자료 :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국내 금리에 미치는 영향

- 다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로 국내 외국인 투자자금이 급격히 유출될 경우에는 국내 기준금리도 인상 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
 - 2015년 6월 이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상승함에 따라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 유출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도 2015년 1월 평균 1,089원에서 11월 1,152원으로 상승
 - 향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외국인 투자자금이 급격히 유출된다면 원/달러 환율 급등 등으로 국내 기준금리도 일정 부분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 존재

- 그러나 상대적으로 양호한 외환건전성, 지속적인 대규모 경상수지 등을 고려시 외국인 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 및 이에 따른 국내 기준금리에 대한 인상 압력은 제한적인 수준으로 예상
 - 현재 국내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이 약 32% 수준인데다 외환보유액은 3,681억 원 수준인 점 등을 고려시 외환건전성이 견고한 것으로 평가
 - 더욱이 국내 경상수지는 2012년 2분기 이후 최근까지 대규모 흑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6년에도 흑자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또한 외국인의 국내 채권 보유 비중이 6%대에 불과해 향후 자금 유출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 유출입 및 원/달러 환율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 국내 경상수지 및 대외채무 대비 단기외채 비중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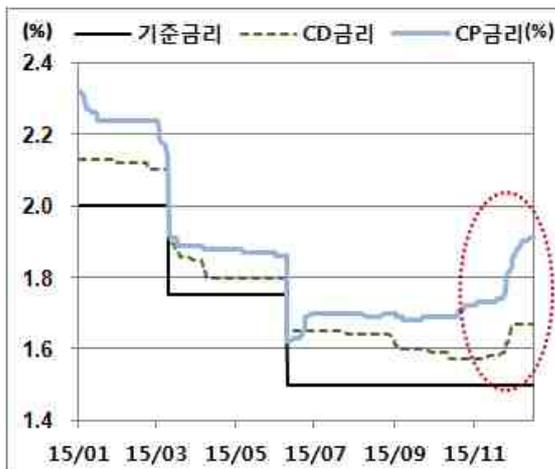
주 : 단기 외채란 1년 이하 외채.

② 국내 단기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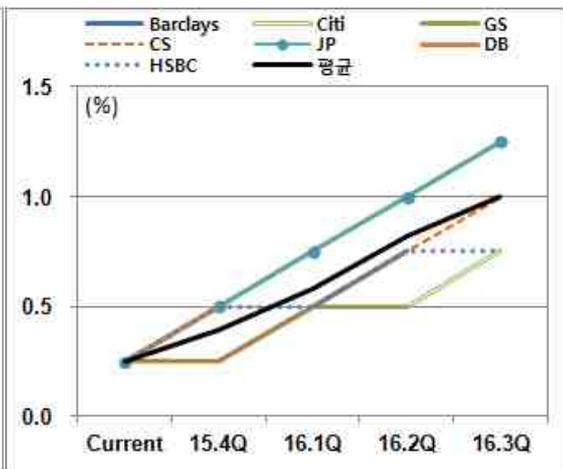
○ 국내 단기 금리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최근 급격히 상승했으나 향후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국내 단기 금리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선반영되며 이미 11월부터 상승
 - 국내 기준금리는 2.0%에서 2015년 3월 1.75%로 0.25%p 인하되었으며, 6월 다시 0.5%p 인하하여 현재까지 1.5%를 유지
 -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2일 1.57% 수준이었던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가 최근 들어 1.67% 수준까지 상승
 - 기업어음(CP, 91일물) 역시 11월 2일 1.72%에서 최근 1.91%로 상승
- 또한 미국 기준금리는 향후 완만한 속도로 인상될 전망
 - 11월 말 기준 주요 국제 투자은행들은 2016년 3분기까지 약 1% 내외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
 - 특히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회복세가 미약한데다 중국 경기마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홀로 강한 회복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전망
 - 따라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예상보다 더욱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국내 기준금리 및 주요 단기 금리 추이> < 주요 투자은행의 연방기금금리 전망 >



자료 : 한국은행.
 주 : CD는 양도성예금증서(91일물), CP는 기업어음(91일물)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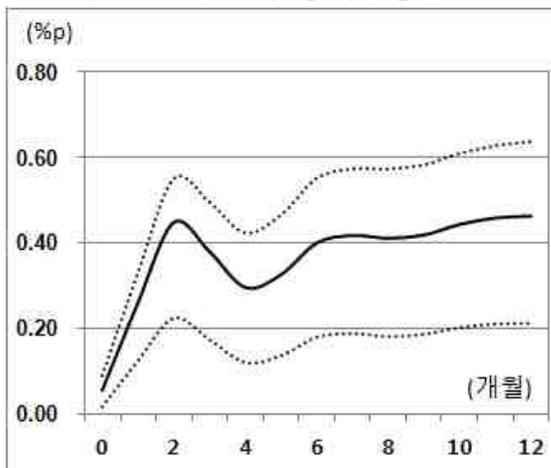
자료 : 국제금융센터.
 주 : 1) 11월 27일 전망.
 2) 각 투자은행별 전망치 상단 기준.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국내 금리에 미치는 영향

- 미국 기준금리 인상 영향이 단기 금융시장에 선반영된 부분이나 향후 미국 기준금리의 완만한 인상 속도 등을 고려할 경우 국내 단기 금리의 상승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전망
 -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의 CD 금리가 1%p 상승한다면 국내 CD 금리는 3개월 후 0.38%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이미 미국 단기 금리가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선반영되며 상승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 단기금리도 상승한 상황
 - 또한 향후 미국 기준금리가 매우 완만한 속도로 인상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국내 단기 금리가 현재 수준보다 크게 상승할 가능성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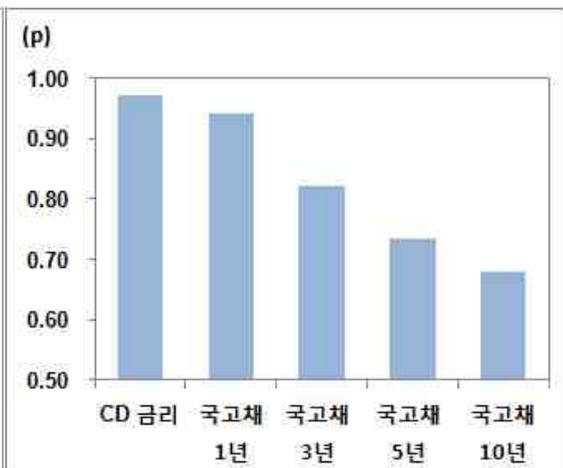
- 더욱이 국내 기준금리의 인상 가능성이 낮은 점 역시 향후 국내 단기금리의 상승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콜금리는 기준금리인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와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
 - 국내 주요 장단기 금리와 콜금리와의 연관성을 보면 만기가 줄어들수록 콜금리와의 상관계수가 높음
 - 국내 주요 단기금리인 CD 금리의 경우 국내 콜금리와의 상관계수가 0.97로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고채 10년물 금리의 경우 콜금리와의 상관계수가 0.68로 상대적으로 낮음

< 미국 단기금리 충격에 대한 국내 CD 금리의 충격반응함수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추정.
 주 : 1) 미국 CD 금리 1%p 상승 충격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2) 충격 이후 12개월까지의 반응.
 3) 점선은 90% 신뢰구간을 의미.

< 콜금리와 주요 시장금리간 상관계수 >



자료 : 한국은행.
 주 : 2001년 1월~2015년 11월 월평균 콜금리와 국내 주요 시장 금리간 상관계수.

③ 국내 장기 금리

○ 국내 장기 금리는 단기 금리와 달리 미국 장기 채권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완만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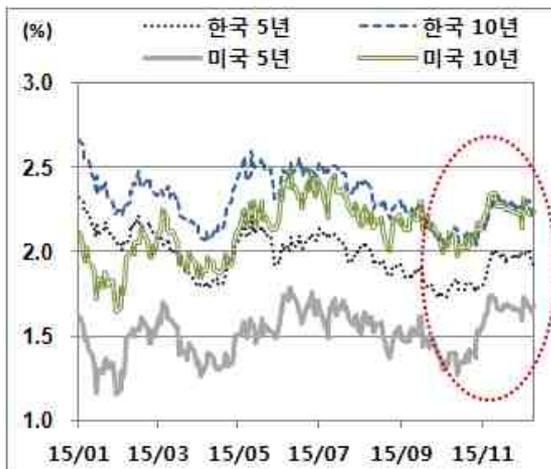
- 미국 기준금리 인상 기대에 따른 미국 장기 국채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국내 장기 채권 금리 역시 11월 초부터 상승

-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미 12월 10일 미국 국채 5년물 및 10년물 금리는 11월 초 대비 각각 0.12%p, 0.06%p 상승
- 한국 국고채 금리 역시 동기간 5년물은 0.12%p, 10년물은 0.10%p 상승하며 장기금리를 중심으로 양국간 금리가 동조화되는 모습

- 과거 미국 금리 인상시 한미간 기준금리가 역전되더라도 장기금리는 대체적으로 한국이 높은 상태를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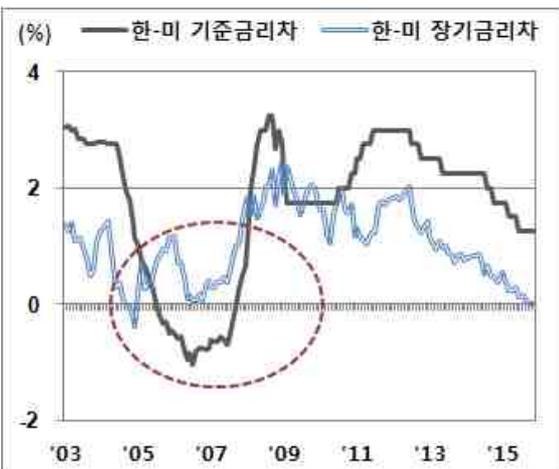
- 2004년 6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반면 한국의 기준금리는 인하되기 시작해 2005년 8월부터 한미간 기준금리가 역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의 국채 5년물 금리 차이는 2005년 8월 이후 일정 수준을 유지
- 즉, 국내 단기 금리와 달리 국내 장기 금리는 국내 기준금리보다 해외 장기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판단

< 한국과 미국 국고채 금리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 한-미간 기준금리 및 국채금리 차이 >



자료 : 한국은행.

주 : 미국 및 한국 국채 금리는 5년물 기준.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국내 금리에 미치는 영향

- 미국의 장기 채권 금리 상승으로 한미간 장기 금리 격차가 감소하며 국내 장기 금리 역시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국제 투자은행들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 장기 채권 금리가 2016년 3분기까지 현재 2.26%에서 2.40%로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
 - 미국의 장기 채권 금리 상승시 한-미간 금리 차이로 인해 국내 장기 채권에 투자되었던 자금이 유출될 유인이 발생
 - 2015년 3분기부터 미국의 장기 금리 상승으로 한-미간 장기금리 차이가 감소함에 따라 외국인 장기채권 투자금액은 10월 31.8억 달러 유출
 - 향후 미국 장기 채권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국내 장기 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 수요가 감소하면서 국내 장기 채권 금리도 상승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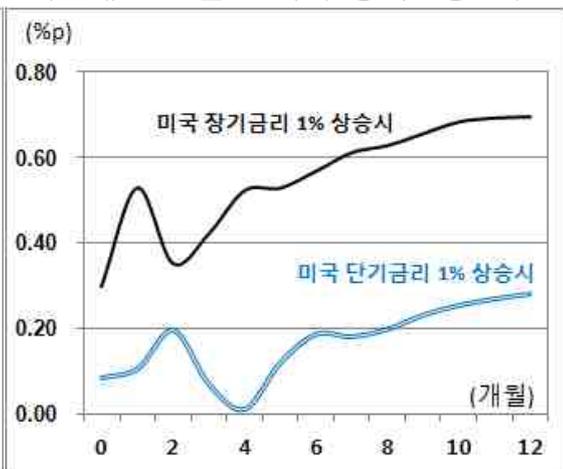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장기 채권 금리 상승, 양국간 장기 금리 동조화 및 외국인 장기채권 투자자금 유출 고려시 국내 장기금리는 향후 완만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음
 - 국내 장기금리는 미국의 단기금리보다 장기금리가 상승했을 때 이에 동조화되어 상승하는 경향이 높으며, 실제 분석 결과를 보면 미국 장기채권 금리가 1%p 상승시 국내 장기금리는 3개월 후 0.42%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미간 장기금리 차이 및 국내 외국인 장기채권 투자금액 유출입 추이>



자료 : 한국은행, FRB of St. Louis.
 주 : 1) 외국인 장기채권 투자금액 유출입은 국제수지 금융계정상 외국인 증권투자 중 부채성 장기증권 항목을 의미.
 2) 한미간 금리차는 각국 국채 10년물 금리.

<미국 장단기 금리 충격에 대한 국내 국고채 10년물 금리의 충격반응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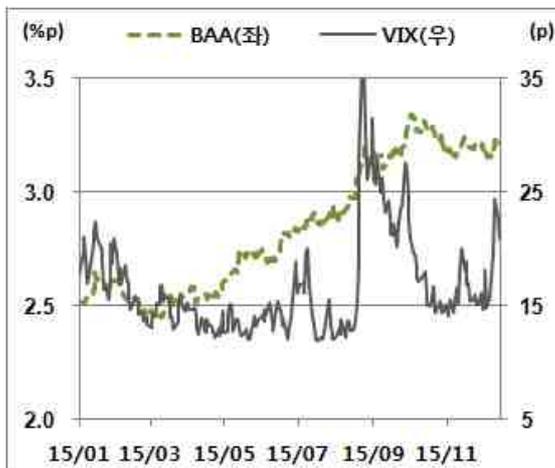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추정.
 1) 미국 CD 금리 및 국채 10년물 금리 1%p 상승 충격.
 2) 충격 이후 12개월까지의 반응.

④ 국내 회사채 금리

○ 국내 회사채 금리는 비우량 채권을 중심으로 상승하면서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최근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 감소한 것으로 판단
 - 미국의 10년 만기 BAA 등급 회사채 금리와 10년 만기 국채의 금리 스프레드는 2015년 하반기부터 상승해 12월 15일 현재 3.21%p를 기록
 -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VIX 지수 역시 12월 FOMC를 앞두고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
- 국내 회사채 금리 역시 향후 비우량 회사채를 중심으로 리스크 프리미엄이 확대되면서 신용 스프레드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2015년 11월 전까지 2% 이하 수준을 보이던 회사채 AA- 등급 3년물 금리는 11월 이후 상승하기 시작해 12월 10일 현재 2.16%를 기록
 - 한편 회사채 BBB- 등급 3년물 금리 역시 7% 이하였으나 11월부터 급등해 현재 8.2% 수준으로 상승
 - 최근 국내 기업들의 성장성 저하 및 수익성 악화점 등을 고려한다면 향후에도 이러한 국내 신용 스프레드 확대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

<미국 신용 스프레드 및 VIX 지수 추이>



자료 : FRB of St. Louis.
 주 : 미국 신용 스프레드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 대비 BAA 회사채 금리 차이.

<국내 국고채와 회사채 간 금리차 추이>



자료 : 한국은행, FN guide.
 주 : 국고채 3년물 금리와 회사채 AA- 3년물, BBB- 3년물 금리간 스프레드를 의미.

⑤ 국내 가계대출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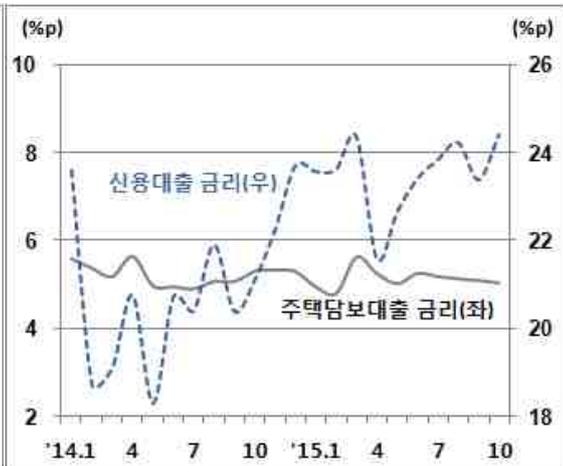
○ 국내 가계대출 금리는 비은행권 대출 금리 및 저신용자 대출 금리를 중심으로 상승할 전망

-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CD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
 -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2015년 10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9%, 신용대출 금리가 4.41% 수준
 - 그러나 대출금리는 CD 금리에 가산금리가 더해져 결정되기 때문에 최근 CD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최근 소폭 상승했을 것으로 판단
- 특히 저소득, 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비은행권의 신용대출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 저소득, 저신용자들의 이용 비중이 높은 상호저축은행의 대출 중 신용대출 금리의 경우 2015년 4월 21.6%에서 10월 24.4%로 지속 상승
 - 더욱이 2016년부터 신규 대출의 대출 심사가 강화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저소득, 저신용자들의 대출 금리는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존재
- 다만 국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대출 금리의 상승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

< 국내 CD 금리 및 예금은행 대출 금리 > < CD 금리 대비 저축은행 가계대출 금리 >



자료 : 한국은행.
주 :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기준.



자료 : 한국은행.
주 : 1)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기준.
2) CD 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의미.

3. 시사점

첫째,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로 인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 마련

- 금융 불안 확대에 의한 기업 투자 심리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상환유예와 수출입금융지원 등 단기적인 유동성 공급 대책 마련
 - 특히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 능력이 낮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신용 평가 시스템을 정교화할 필요
- 또한 투자 의욕 악화를 방지하고 투자 관련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는 투자 관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

둘째, 국내 가계부채가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가계부채 증가 속도 조절 및 질적 개선 노력을 지속

- 국내 금리 상승은 결국 가계의 이자 부담을 확대시킬 수 있으며, 특히 자영업자 및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의 대출 금리가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
 - 저소득, 저신용 계층이 향후 금리 상승시 과도한 부담으로 채무불이행에 빠지지 않도록 현재 시행 중인 서민 금융 지원 제도를 지속 추진
 - 특히 소득 증대 방안 마련을 통해 자구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 연계
- 중장기적으로 국내 경제 회복에 장애 요인이 되지 않게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 조절 및 질적 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셋째, 외환시장 변동에 대한 미세조정 및 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환율의 급변동을 방지

- 외환시장의 불확실성 완화 및 국내 경제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미세조정 등을 통해 원화 환율 급변동을 방지
- 금리재정거래를 위한 달러화 유입이 이뤄질 경우 확대되는 단기 외채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외환 유동성 관리 강화 등 단계별 조기 대응책 마련이 필요
- 외환시장 급변동으로 인한 환위험 피해 완화 대책을 강화하여 환변동에 취약한 수출 기업 피해를 최소화

넷째, 대외 경제 및 금융 충격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 공조 체제 등을 강화

-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원자재 수출 신흥국의 위기 가능성 등 대외 충격이 발생할 경우 국내 경제 주체들의 불안감이 과도해질 수 있음
 - 현재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오히려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시켰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
 - 그러나 유럽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통화완화 정책을 지속하는 등 미국과 주요 선진국간의 상이한 통화정책 하에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야기될 수 있는 측면도 존재
-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신흥국 위기나 금융 불안정성 등의 영향이 다른 국가로 전염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공조 체제 구축과 협력 강화할 필요
 - 글로벌 신용경색 우려는 아시아를 비롯한 신흥시장에서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하여 여타 국가로 전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아시아 국가간 긴밀한 역내 무역 관계 대비 낮은 수준의 금융 통합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일국에 위기 발생시 다국적인 대응이 가능한 '다자간 아시아 통화 협력 체제 구축'이 필요

다섯째, 국내 성장 잠재력 확충 및 가계 소득 증대 등 국내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노력 필요

- 근본적으로는 국내 경제의 성장 잠재력 제고 및 가계 소득 증대 등을 통해 대외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경제 구조로 전환이 필요
 -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의 안정적 유치,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 지속, 기업의 환율 헤징 수단 장치 마련 등의 실물부문 충격완화 대책 마련
- 이를 위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능력을 제고시켜 가계 소득이 증가시키고 또한 이러한 소득 증가가 소비 증가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는 경제 체질 개선이 필요

조규림 선임연구원 (2072-6240, jogyurim@hri.co.kr)